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함*영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텍사스 주 헌츠빌
파견대학	Sam Houston State Univ.	파견기간	2014.8.22 ~ 2015.5.7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텍사스에 있는 작은 마을인 Huntsville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텍사스 대표 도시인 Houston(가장 가까운 국제공항 IAH가 위치한 곳)과 차로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p> <p>학교 규모는 기숙사를 제외했을 경우 순천향대와 비슷하며 학교 내에는 수업을 받는 건물을 제외하고도 도서관, 헬스장, 기숙사, 식당, 학생회관, 음악실, 랩실, Reading and writing center 등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학생증을 들고 가서 책을 빌리거나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고, 컴퓨터가 많고 프린트가 있어서 대부분의 과제를 다 인쇄해 갈 수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만 들고 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내부에서는 라켓볼, 겨울을 제외하고 외부에서는 수영장도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회관에는 여러 프렌차이즈 음식점들이 있고 옆쪽에는 포켓볼 치는 곳도 있습니다. 음악실은 음악 전공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나, 지하로 내려가면 피아노 연습실이 있습니다. 랩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언어 공부를 주로 하는 곳인데 이곳도 컴퓨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도서관이나 writing센터에서 주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writing 센터는 예약 후에 침식을 주로 받으러 가는 곳이고 이곳에도 컴퓨터가 있어서 가끔 과제를 하러 갔습니다. 좋은 점은 학교내의 어느 컴퓨터에도 내 아이디로 사용자 설정이 다 되는 시스템이라 그곳에 저장을 해 놓으면 도서관이든 writing 센터든 내 아이디만 있으면 그대로 저장된 것을 불러올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p> <p>학교내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학교다 보니 대체로 조용한 편입니다. 텍사스는 Bible belt 지역으로 기독교인이 거의 90 퍼 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적인 특색도 있습니다. 약간은 다른 지역보다 보수적인 느낌도 있고, 더 예의 바른다는 느낌도 듭니다.</p>

2014-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 Pilates-based Cond for Dance (Professor Nicolay) 2학점**

필라테스 요가를 배우는 수업으로, 한 달에 한번 꼴로 필기 수업을 듣거나 동영상 보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실기 수업입니다. 요가 동작을 교수님과 함께 배울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경험상 체중을 유지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지금까지 한 동작을 기반으로 한 번씩 실기로 보고 자신의 몸의 변화나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필기로 시험 봅니다. 마지막 기말레포트는 자신만의 필라테스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적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매트, 요가밴드, 필라테스 봉이고 복장은 레깅스와 위에 편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요가 수업 중에서도 기초를 다지는 수업이고 교수님도 친절하셔서 쉽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가 하는 것을 좋아해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만, 더 활발한 수업을 원하는 분은 비추입니다.** 움직임이 엄청 크지 않고 음악도 고요한 음악을 배경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

**\* English Grammar (Professor Adams) 3학점**

영어 문법을 배우는 수업으로 아주 기초적인 문법부터 한국에서 배운 스타일과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은 어려운 문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수업방식은 교과서를 기준으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식입니다. 노트를 준비해서 교수님 판서를 정리하면 시험 때 거기서 80%는 다 나옵니다. 시험은 총 6번 정도 본 것 같고 뒤로 갈 수록 배점이 커지고 시험도 어려워집니다. 복습만 열심히 해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과제는 시험 직전에 리뷰테스트 풀어오기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추천합니다.** 또한 미국은 과제가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과제가 없어서 너무 행복했던 수업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한국식 수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참 잘 맞았던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도 한국학생들과 수업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서 친절하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 Elementary Spanish I (Professor Julio Medina Lopez)**

**+ Spanish LAB 총4학점**

이 학교 학생들은 외국어를 하나 정해서 4년 동안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 수업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이 듣는 수업이 스페인어 수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초부터 난이도 높은 레벨까지 스페인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 수업은 책을 사거나 인터넷으로 책을 보는 교재를 꼭 구입해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과 같이 LAB 수업도 1시간을

정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재를 구매했을 때 알려주는 LAB 이용번호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업 방식은 교재로 수업을 하면서 중간에 짝을 지어서 대화연습을 많이 합니다. 수업시간에 발표 점수를 주셔서 점수를 올릴 기회도 주시기도 합니다. 과제는 정말 많습니다. 양이 많다가 보다 자주자주 있습니다. 스페인어 작문을 4번 정도 하고, 중간에 숙제처럼 조사해오는 과제 4번, 학교에서 하는 스페인어나 멕시코 문화 체험 과제 3번 정도, 스피킹 시험 2번, 쪽지시험 4번, 그리고 필기 시험이 총 4번 정도 있습니다. 작문은 편지쓰기, 나의 미래계획 등등을 쓰고 구글 번역기 사용하면 쉽습니다. 문화체험도 경험 삼아 친구랑 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스피킹 시험은 내 친구 소개하기, 내 가족 소개 같은 주제로 합니다. 쪽지시험은 주로 단어 시험입니다. 과제는 성실하면 어렵지 않지만 시험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B 시간에는 자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주어진 할당량을 공부합니다. 이게 배점이 거의 30%는 들어가서 모든 과제 다 빼먹어도 이거만해도 점수가 대강은 나옵니다.

**이 수업은 성실하고 스페인어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입니다.** 게다가 이 교수님 스페인어 수업은 제가 가서 만났던 외국인이나 한국인 유학생들도 추천했던 수업입니다. 중간에 재미있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성실히 하는 학생은 정말 사랑하는 수준이고요. 저는 워낙 늦장을 부리는 성격이라, 아침8시 수업을 신청했더니 일단 수업자체를 지각, 결석을 많이 하게 되어서 힘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의 이런 불성실 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저를 놓지 않아주신 교수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결론적으로 수업과 교수님은 참 좋았습니다. 다만 성실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 **\* Composition I (Professor Debora Greene) 3학점**

작문수업은 학교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시간표 짤 때 보면 교수님도 다양하시고 수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마다 수업방식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작문수업이 전체적으로 다 같은 책을 사용하는데 이 수업은 책을 괜히 시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조금 사용했고, 주로 수업시간에 토론을 했고 교수님께서 아주 가끔 판서를 하셨습니다. 한 주는 온라인 수업 한 주는 강의실 수업 이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았습니다. 작문은 공통적으로 4번 정도 써서 냈고 숙제는 거의 없었지만 발표도 공통으로 한 번 들어갑니다. 작문 내용은 처음에는 자기 주장 글을 씁니다. 토플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후반 부에는 책을 읽고 쓰는 거랑 발표주제에 관한 글을 씁니다. 발표주제는 요새 흔히 다뤄지는 문제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p>아름다움,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 어린 시절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발표는 그룹을 지어서 15분 ~ 30분 했습니다. 뭔가 교수님 수업에서 강의를 들을 것을 예상하고 왔지만 주로 책을 보고 스스로 찾아서 작문을 해야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글 하나 써가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b>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 수업은 비추천 입니다.</b> 교수님은 친절하시고 학생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저를 비롯해 다른 학생들도 그닥 소통하고 싶어하지 않더군요. 작문 수업은 정말 교수님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으니 ratemyprofessor.com 에 들어가서 꼭 교수님 평점이나 댓글 읽어보고 수강 신청하세요.</p>
<p>2015-1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b>* The English Language (Professor Halmari) 3학점</b></p> <p>영어학 수업으로 영문과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배웠을 통사론, 음운론, 음성학, 언어발달이론 등을 총체적으로 배웁니다. 중간에 문법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 수업은 English Grammar 수업을 듣고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수업 난이도는 부분마다 다른 것 같은데, 영문과 수업을 들었던 학생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의 과목들을 제가 나열한 것처럼 다 나눠서 배우는데, 경험상 그 중 몇 개 먼저 듣고 온 과목에 대한 수업은 이해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반면 몰랐던 부분은 어려워서 혼자 복습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p> <p>수업은 교과서 위주로 교수님이 판서하시면서 진도를 나가시고, 중간에 점수를 올려주는 영어학 비디오 보고 독후감 써오는 것과 과제 2번 정도가 나갑니다. 점수는 중간에 한 번 알려주시니 이것은 선택이고, 시험은 총 6번 정도 봅니다. 정말 시험을 자주 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발표를 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p> <p>수업시간에 소통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시고, 학생들이 교수님을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같이 잘 챙겨주셔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까지 할 정도로... 저도 수업시간에 발표를 손들고 하는 편이 아닌데 이 교수님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분위기 이니, 교수님께서 자주 물어보심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도 하고 지각만 안 하면 미움 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b>영문과 언어학 수업 배워본 학생에게 추천합니다.</b></p> <p><b>* Hip Hop Dance Technique (Professor Scimio) 2학점</b></p> <p>힙합댄스를 배우는 수업으로 굉장히 활기찬 수업입니다. 수업 방식은 매일 댄스를 배우는 것이고, 과제나 시험은 중간에 프린트를 몇 번 나눠주시고 그걸로 쪽지시험을 2번보고, 동영상보고 보고서 써오기 1번, 학기말 쯤에 학교에서 하는 공연보고 보고서 1번 써오기, 댄스 시험 2번</p>

정도가 있습니다. 이 수업은 마지막에 공연을 하고 다른 수업보다 1주일 정도 일찍 끝납니다.

힙합댄스라지만 기초반이라서 엄청 어렵지 않고 수업만 빠지지 않고 잘 가면 나름 재미있게 잘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활기차시고 재미있어서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2명이나 1명 정도 혼자 춤을 추거나 기본 동작을 연습할 때가 있는데, 정말 창피하지만 나름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연은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이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하실 거 같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혹시 가능한 수업이라면 정말 추천입니다. 재미있어요.

### **\* Composition II (Professor Tomchik) 3학점**

이 수업도 작문수업1과 마찬가지로 필수과목이라 수업이 많고 교수님이 다양하게 계십니다. 이 수업도 작문1 때 쓰던 책을 하나 그대로 쓰고 다른 교재는 교수님 재량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교과를 활용 많이 하셨고, ppt 이론 수업도 하셨고, 판서 수업도 하시고, 토론 수업도 같이 하시면서 참 다양하게 수업 방식을 활용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것도 작문을 4번 정도 써야 했고, 쪽지 시험이 4번 정도 있었고 중간 기말 고사 각 1번씩, 발표, 토론 등을 해야 했습니다. 작문은 처음엔 책 읽고 찬반 주장에 대해 쓰는 것과, Citation 넣은 글 쓰는 것과, 영화 보고 archetype에 대해 쓰는 것, 마지막으로 annotated bibliography 와 그에 기반한 paper 쓰기가 있었습니다. 쪽지 시험은 주로 ppt 수업내용이나 책을 읽은 후에 그에 기반한 문제를 짧게 봤고 토론은 책을 읽은 후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는 archetype을 하나 정해서 paper 쓴 것을 기반한 것을 위주로 5분 동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는 쉬웠습니다. 작문2 듣는 학생들이 다 같은 시험을 보는 거라서.

전반적인 수업은 교수님께서 차분하시면서도 재미있으셔서 즐겁게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제의 양이 정말 많았고 특히 Citation 이나 Annotated bibliography 그리고 기본 7장은 써야 하는 Paper는 제가 한 달 동안 방콕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안 해 갈 수도 없는 게, 이 많은 걸 다른 아이들은 다 해왔고, 점수 배점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미국식 작문 수업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도 좋으시고 수업방식 좋았지만, 정말 한 달을 과제준비 하면서 피를 말렸고 스트레스도 무진장 받았기에, 학점을 적게 신청할 학생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에게 수업 추천합니다. 설렁설렁 할 수업이 아닙니다. 내용은 작문 1보다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 People, Place and the Environment**

### **(Professor Fjimoto-Strait) 3 학점**

지리에 관련해서 배우는 기초적인 수업으로 미국의 지리와 환경 뿐만 아니라, 세계 각각의 나라에 관해서도 배웁니다. 세계지리랑 미국지리랑 섞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교수님께서 수업 전에 ppt교재를 올리시는데 도서관가서 미리 뽑아서 준비해 간다면 수업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은 그냥 공책에 필기 하더라고요. ppt교재 위주로 수업하시는데 조사숙제 1번을 내 주시고, 시험은 총 4번 봅니다. 조사는 도시를 위주로 조사하는 거고, 저는 마을 다운타운을 조사했습니다. 시험은 배운 ppt에서 나오고 첫 시험을 제외하고 모든 시험에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이 추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수업시간에 친구들 발표까지 필기해야 했습니다. 지리에 관련해서 자유주제로 10분 발표나 10장짜리 paper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는 과제가 있는데 배점이 상당합니다.

교수님께서 세계적으로 다 수업 범위를 잡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수업내용은 나름 흥미진진 합니다. 미국 지리를 배울 때는 수능을 위해 보던 한국지리와는 내용은 같지만 지형적으로 다른 부분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토론은 권유를 자주 하시지만 억압하지는 않아서 좋았습니다.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며, 발표나 paper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친구에게 추천 합니다. 은근 paper가 억압적이에요.

## **\* United States History Since 1876 (Professor Carroll)**

### **3학점**

미국 역사 수업으로 남북전쟁 이후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것도 필수과목이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수업방식은 공통교과서를 위주로 나갔고요, 교수님께서 ppt를 만들어오셔서 중요한 것을 더 설명하면 필기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쪽지시험을 4번 정도 보고, 조사숙제를 4번 정도 내주시고, 시험을 4번 정도 더 봤어요. 과제는 마지막에 자유주제로 Chicago style로 paper 5장 이상 쓰기 하나였습니다. 쪽지시험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강조하셨던 게 2문제 정도 나오고 시험은 시험 전날에 리뷰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답 써서 공부하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은 정말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거의 암기라서... 그런데 마지막 paper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무엇보다 미국 역사를 주제로 한 거니까 수업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주제 잡는 것도 오래 걸렸고 역사에 관한 자료 찾기도 지루했고, 무엇보다 생소한 시카고스타일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이 수업은 열심히 들으면 점수는 나올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paper를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조금 쉽게 하지

	<p>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교수님께서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셔서 (미국 분이 아니셨어요. 핀란드에서 이민 오심.) 저는 오히려 못해도 미움을 덜 받은 것 같네요. 수업시간 태도 같은 거나 뻔뻔함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칼 같으시지만 나름 친절하십니다. 한국인 특유의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살리면 예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우리나라 6.25 와 일제강점기 나오는 부분에서는 더 흥미를 가지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와 아시아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b>이 과목은 성실히 미국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b> 개인적으로 나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paper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교환학생들이 계속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international office 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출발하기 전에 학교에 집 구하는 문제랑 공항 픽업 신청 문제로 이메일을 넣어서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얻고는 했습니다. 교환학생 담당자가 바뀌어서 바뀌신 분 이름은 모르겠네요. 학교에 가면 담당부서는 <b>Farrington Building 1층에 있는 international office</b> 입니다. 첫날에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b>mysam.shsu.edu</b> 에서 일정 확인하고 모르겠다면 이메일로라도 확인해서 날짜 숙지하고 싸인을 하고 가면 됩니다. 저도 모르고 싸인 안 하고 갔는데 그냥 가니까 해주긴 했어요. 오티가면 먹거리, 티셔츠, 메모지, usb, 열쇠고리 등등 필요한 거 몇 개 주고, international students 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F1 학생비자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날 가면 학교 한번 돌면서 점심도 주고 소개도 해주고 합니다.</p> <p>오티를 제외하고도 많은 국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담당자와 그 해 학생들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할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크지도 않고 그닥 특별한 것이 없어서 내키는 것만 몇 개 골라 참여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 파티 종류는 피자파티, 할로윈 파티, 추수감사절 행사, 크리스마스 파티, 각 나라별 새해 파티, 등이 있었고 마지막 3월 즈음엔 <b>교환학생들이 가서 자기 학교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발표도 합니다.</b></p> <p>교환학생 프로그램 중에 <b>GAP 프로그램</b>이 있는데 오티 날 가서 등록 여부를 물어봅니다. 참여하는 것이 좋고 여기서 버디를 짝지어 주는데 첨에 가서는 친구가 없으니 버디를 통해 친구를 알게 되거나 친해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p>

	<p>그 외에 국제 학생들을 위해 외부로 차를 타고 나가는 픽업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b>매주 Walmart Trip을 가고, 가끔 Galleria Mall 이나 Woodland Mall 도 가고, 한 달에 한번 한인마트와 홍콩마트를 가는 Shopping Trip 이 있습니다.</b> 헌츠빌은 매우 작아서 한국 음식점 조차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장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쇼핑 트립이 없는 주에 텍사스 내의 유명한 장소를 놀러 갑니다. 예를 들면, <b>Nasa 기지국, Rodeo Festival, Six Flags, Houston 박물관, Galveston</b> 등을 갑니다. 이 트립 들은 모두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지만 적절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선착순이 있으니 수시로 메일 확인하고 안 와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신청하세요. 어디 놀러 가서 보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제일 남는 것 같네요.</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헌츠빌은 4 계절이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텍사스는 건조할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Houston 자체가 굉장히 습합니다. 특히 헌츠빌은 숲이 많고 시골이어서 더욱더 습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기상청 어플을 보니까 습도가 90% 일 정도였습니다. <b>여름 날씨는 4월에서 10월 까지 계속 되었고, 진짜 햇빛이 강하고 덥고 습합니다.</b> 심하면 39도 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밖이 더운 것에 비해 실내가 에어컨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가디건이나 걸칠 옷들은 필수 입니다. 안 그러면 감기 걸려요. 햇빛도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있다면 꼭 지참하세요. 저는 저 기간에는 선글라스 끼고 학교도 다녔습니다. 실제로 현지 친구들은 선글라스를 여름 뿐 아니라 가을이나 봄에도 낄 정도로 텍사스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햇빛이 굉장히 강한 것 유의하시고, 또 그만큼 엄청 탑니다. 정말 피부가 새까매져서 왔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일 것 같네요. 복장은 너무 더워서 맨날 짧은 반바지에 위에는 반팔을 입었습니다.</p> <p><b>가을은 11월 , 봄은 3월 진짜 딱 이정도 만 중간 계절이 있습니다.</b> 긴 팔 옷이나 후드티 하나 정도 입으면 견딜 날씨 입니다. 정말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봄인 3월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텍사스는 이때가 장마 비슷한데, 진짜 비가 매일 옵니다. 근데 비가 엄청 왔다가 햇빛이 엄청 강하게 쨌 낄다가, 따뜻하다가도 엄청 쌀쌀해지고, 가끔은 그냥 하루 종일 부슬부슬 비가 오고 이러기도 합니다.</p> <p><b>겨울은 12월에서 2월 까지 계속 됩니다. 은근히 겨울이 길고 생각보다</b></p>



	<p><b>춥긴 해서 따뜻한 옷도 나름 필요합니다.</b> 저는 두꺼운 옷을 안에 껴입거나 후리스를 입으며 생활 했습니다. 겨울이 춥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많이 내려가지 않아서 엄청 따뜻한 옷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야상을 가져갔는데 한번도 입지 않았어요. 제일 추웠던 온도가 영하3도였고, 겨울은 대체로 0도에서 5도였던 것 같습니다. 눈도 오지 않고 혹 온다 해도 진눈깨비가 휘날리는 정도 입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평상시에는 문제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고 또 학교가 교도소를 운영하고 경찰학과가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치안도 높은 편이고 경찰도 밤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학교에서 경찰서가 매우 가까워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갈 수 있을 거리 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밤에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것이 두려운 학생들을 위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경찰이 함께 와서 걸어가준다고 하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p> <p>흔히 미국이 총기 소유도 가능하고 해서 위험하다고 하지만 저는 가서 그닥 위험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해가 지면 밖에 나가는 것은 비추입니다. <b>현지인들도 밤에 차 없이 걸어 다니는 걸 위험하게 생각</b>하고 저도 밤 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술 취한 애들이 가끔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친구들은 그냥 밤 9시 되면 집에 있거나, 친구 차를 타고 나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0 ) 기타( )</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외부 아파트 University Place Apt에 살았습니다. 숙소를 늦게 구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처음에 다 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현지 친구를 알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 어찌저찌 살림을 잘 마련하게 되었지만, 기왕이면 8월 전에 다 숙소를 구해서 싸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시설은 헬스장, 오피스, 빨래방, 수영장, 족구장 등이 있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운동 삼아 걷기는 좋았습니다. <b>일단 저는 이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할게 너무 많아서 추천하지 않고요,</b> 다른 아파트로는 <b>Arbors apt 나 woodhallow apt 추천합니다.</b>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가격도 괜찮고 시설은 그냥 쓸 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버스 아파트는 친구들도 추천을 많이 했고, 우드할로우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학교에 물어보거나 사이트에 쳐보면 외부숙소가 리스트가 짝 나오니 참고하세요. 기숙사도 몇 군데 들어가봤는데 가격에 따라 시설도</p>

	<p>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숙사는 방학 때나 추수감사절에 방을 빼야 하고, 유지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가기 전에 기숙사가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좀 덜 좋은 곳은 나름 싸다고 합니다. 학교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시고 가세요.</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0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 직접 요리 ( 0 ) 기타 ( )</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학교식당은 매일 식단이 바뀌어서 나오고 한끼에 대략 8 달러 정도 합니다. 저는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아서 다 그냥 정가 주고 사 먹었습니다. 외부식당은 학교 학생회관 지하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들을 사용했고, 월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끼에 10달러면 충분히 먹습니다. 피자, 치킨,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롤, 과자, 음료, 빵 등이 있습니다. 학교 식당은 약간 더 비싸고 양이 적은 편이지만, 한국인이 먹기에는 괜찮은 양 같습니다. 직접요리를 해먹은 것은 집 근처의 <b>HEB</b> 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b>CVS 편의점</b>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HEB 보다 비쌉니다. 가끔 친구 차를 타거나 인터내셔널 오피스의 쇼핑트립을 이용해 <b>월마트</b>를 갔습니다. 한 달에 한번 김치와 한국 음식을 사러 <b>한인마트</b>도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매번 사서 먹었는데 큰 통에 1달러 정도로 싸지만 은근 많이 나갑니다. 엄청 청결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b>월마트에 가면 Brita 라고 물통에 정수 기능이</b> 달려있어서 수돗물을 부으면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통과 여과기를 팝니다. 작은 물병부터 큰 물통까지 있으니 이거 이용하시면 돈 절약하고 무겁게 물 나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통은 약간 작은 사이즈 샀고 여과기 3개사서 대략 30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매일 20분씩 걸어가서 통학했습니다. 나름 운동되고 괜찮습니다. 시내를 나갈 때는 친구 차를 얻어 타거나 인터내셔널 오피스 차 타고 여행간 정도입니다. 주요도시는 Houston (차로 1시간), Woodland (차로 30분), Dallas (차로 3시간), Austin (차로 2시간), San Antonio (차로 2시간 반) 등이 있습니다. 시내교통으로는 택시나 그레이 하운드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달러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p>한국에서 미국: \$1,000</p> <p>미국에서 한국: \$750</p> <p>총: \$1,750</p>	

F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Office Service fee: \$12 x 2</li> <li>총 \$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rnational fee 는 매 학기 한번씩 내야 해서 총 2번 냅니다. 인터넷으로 결제 가능해요.</li> </ul>
보험료	\$1500	<p>샘휴스턴은 학교보험만 취급합니다. 1학기 내로 다 지불해야 하는데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저는 5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냈습니다.</p>
숙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iversity Place Apt 집세: \$350x9 -&gt;\$3,150</li> <li>- 전기세: \$ 619.36 (10개월)</li> <li>- 가구 장만: \$250</li> <li>총 4019.3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세는 아파트 유지비와 가스비, 수도세 합친 가격 입니다.</li> <li>- 전기세는 매달 다르게 나왔습니다. 에어컨이 더 싸게 나오고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li> <li>- 가구: 침대, 책상, 의자, 식탁세트, 조리기구 등등 (손수 조립)</li> <li>* 전기세나 수도세는 아파트에 따라 안내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기숙사는 안됩니다.</li> </ul>
식비	총: \$4,000 (1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경비는 빼고 계산한 대략적인 값입니다.</li> </ul>
교통비	<p>Houston - Florida - Las Vegas - California - Houston : 총 \$1,305 (비행기4번, 메가버스 1번, 택시와 시내 버스)</p> <p>Houston - Louisiana -Houston : 총 \$ 232.50 (비행기2번, 택시와 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없어 여행 다닐 때 드는 교통비를 적어 봤습니다.</li> <li>- 비행기를 통해 이동했고 도시 내에서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했습니다.</li> <li>* 미국은 택시비가 정말 비싸고 택시 tip도 10% 줘야 합니다.</li> </ul>
책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기: \$166 (4권)</li> <li>-2학기: \$95.76 (4권)</li> <li>총: \$261.7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은 모두 빌린 책들 입니다. (반납 필수)</li> <li>* <b>Amazon.com</b> 과 <b>Chegg.com</b> 책을 가격 비교해보고 날짜 걸리는 거 계산하고 시키세요.</li> </ul>

합계	\$ 11555.12	- 한 달 생활비로 100만원 보내 주시면 집세 계산하고 먹고 놀고 하는데 부족함 없었습니다(보험료 제외). 여행 경비는 3주 가면 총\$3350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저는 **파견대학교에서 순천향대에 교환학생으로 왔었던 친구를 미리 알고 가는 것**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이미 자신들도 교환학생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 갔을 때는 친구 사귀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20**는 꼭 챙기시고, 파견대학에서 온 다른 서류 같은 것 챙겨 가보세요.

짐을 쌀 때 미국에서 비싼 것 더 싼 것 또는 내가 꼭 필요하게 될 것 들을 잘 구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중요하니 무거운 것은 되도록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들고 가면 올 때 가서 산 물건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가지고 갔던 물건을 오히려 다 버리고 와야 할 지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 특별히 챙겨간 것은 눈이 안 좋은 편이라, **미국이 안경이나 렌즈가 한국보다 2배는 비싸서** 안경 미리 맞춰가고 렌즈도 여분으로 몇 쌍 더 챙겨갔습니다. **렌즈 세정액도 미국이 2배 정도 더 비싸서** 챙겼는데, 이걸 무게가 많이 나가니, 혹시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옷은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쁜 옷이나 아끼는 옷은 거의 놓고 왔습니다. **세탁기가 정말 세서 옷이 망가질 수 있고, 건조기도 옷이 너무 줄어들게 만듭니다.** 망가질 염려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돼지코(변환기)는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있던 마을에는 마트에 다 돼지코가 없었습니다(Walmart, HEB, CVS).

한국에서 **작은 기념품 같은 것 조금** 챙겨가면 좋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 주면 별거 아니어도 고마워합니다. 한국 홍보겸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교환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10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있다 보니 차차 적응이 되어서 벌써 다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차이겠지만, 근 1년 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지만, 마냥 즐거웠던 것 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행사 참여도 많이 하고 현지 친구들이랑도 교류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특히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학교를 다니는 일상이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 시골이다 보니 좀 답답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냥 한국에 돌아가고 싶단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친구들과는 완벽하게 마음을 공유하며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종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봄 학기 때는 학점도 많이 들어서 paper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 두 달은 맨날 과제를 붙잡고 있던 기억이 남습니다. 같이 교환학생을 갔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해 봤지만 오히려 더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기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보고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보려고 했지만, 저 혼자서는 그냥 다시 무기력해졌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극복 방법이 된 것이겠지만, 그래서 같이 온 언니를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한국음식도 혼자 많이 해먹고, 거기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인 분들도 만났습니다. 이런 한국 매개체들이 나름의 힐링이 되었고, 마지막 즈음에는 한국 교수님들의 조언에 친한 언니들과 여행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돌아올 즈음이 되어서는 다시 정신차려지고 친구들도 조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울한 얘기를 굳이 여기에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셨을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자괴감을 갖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견 전에 가졌던, 영어만 쓰고, 현지인만 만나고, 열심히 여기저기 참여하고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타지에 오래 있다 보면 약해질 수 있고, 약해진 생각을 하는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 때 오히려 스파르타 식으로 더욱더 열심히, 보다는 저는 잠시 쉬어가며 힐링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정신차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있었던 봄학기 중이 무료하다 보니 여기 저기 놀러 다녔던 것이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저기 많이 보고 온 것 같은데요, 교환학생 가서 가져올 것은 뭐든지 간에 새로운 곳, 새로운 것 들을 경험하고 건문을 넓히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오래 여행을 가지 않아도 중간중간 여기저기 다녔던 것들이 다 추억이고 우울 안 개구리 생각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짧게라도 볼 것 있으면 많이 놀러 다니는 것이 남는 것 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Mexican Independence Day



Sam Houston University



NASA SPACE CENTER in HOUSTON



Crawfish and Cajun foods  
**(Southern Recipe)**



Football



Halloween party